

안전 보건

1

2025
JANUARY
Vol.425

2025년
을사년 새해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오달지다

이달의

'안전' 우리말



일터에 잠재된
위험을 찾아
오달지게 안전 조치

—
오달지게
'허술한 데가 없이 알차다'라는
뜻의 순우리말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P06

신성이엔지 편

2025 위험성평가

■ 평가대상: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 공정

■ 실시 일자: 2025.1.1.

■ 평가자: 김 안전

번호	유해 위험요인 (위험한 상황과 사건)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선택사항)
1	-----	□ ■ □ 상 중 하	-----	-----	-----	-----	
2	-----	□ ■ □ 상 중 하	-----	-----	-----	-----	
3	-----	□ ■ □ 상 중 하	-----	-----	-----	-----	
4	-----	□ ■ □ 상 중 하	-----	-----	-----	-----	
5	-----	□ ■ □ 상 중 하	-----	-----	-----	-----	
6	-----	□ ■ □ 상 중 하	-----	-----	-----	-----	
7	-----	□ ■ □ 상 중 하	-----	-----	-----	-----	
8	-----	□ ■ □ 상 중 하	-----	-----	-----	-----	

조를 발생 작업에
게 고지 후 보호구 착용
(산안법기준규칙 제 513조)

- 지게차 후방감지기 설치 또는 후
진경보기 경광등 점검
(산안법기준규칙 제 179조)

- 보행로와 작업구역 구분

- 지게차 적재 높이 제한을 통한
운전자 시야 확보
(산안법기준규칙 제 173조)

- 제풀 3단이상 적재 금지
노후된 파레트와

새해에는
위험성평가로 시작하세요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일터의 주역인 근로자 여러분!

산업현장 안전보건 증진에
힘써 주시는 사업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더욱 행복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기업은 일터 안전보건을 위해 지속적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었고, 근로자는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안전수칙을 적극 잘 지키면서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천 노력은 중대재해

감축 기반을 다지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의 한 전지업체에서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대형 사고를 겪었으며, 아직도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타까운 소식보다는 희망찬 소식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등 우리 사회 많은 분야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보건 분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신산업의 발전과 인구 및 고용 형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업재해 취약 영역이 확대되고 산재 취약 계층의 직업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의 위험 요소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하는 안전보건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재 예방 사업을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일터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점검을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공공부문의 안전보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지향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용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안전보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 산업재해 취약 영역과 산재 예방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형태에 따른 안전보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입국 전후는 물론 취업 중 교육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송출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산업보건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디지털 기반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급성중독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하며, 직업성 질병 예방에 관심을 갖고 균형감 있는 산재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폭염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와 시설 지원을 늘림으로써 기후환경 변화

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 시스템, 분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산재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범국민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할 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해 안전이 일터에서 우리 사회 문화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산재 예방 사례를 발굴·보급하고, 배달 근로자에게 시인성을 높은 안전장비를 지원하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널리 확산하고 안전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재 예방 활동을 다각화할 것입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선진국의 필수조건입니다. 일터의 안전은 곧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올 한 해 안전을 우리 사회의 문화와 생활로 정착하고, 일터에 생명존중의 정신과 안전보건의 가치를 확립하여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힘을 모아 실천하는 안전보건 증진 노력들이 안심과 행복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과 건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날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중주

안중주

안전 보건

1 2025
JANUARY
Vol. 425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안종주 이사장
편집위원장	안전문화홍보실 심연섭 실장
외부위원	한국산업보건학회 김승원 편집이사 한국안전학회 옥승용 편집이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김광일 본부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 한국잡지협회 유정서 전임교수 기업홍보연구원 이주형 교육운영본부장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김동운 부장 김·장법률사무소 김병규 전문위원 젠더심향상교육원 우명순 센터장 광운대 스마트시스템학과 권순철 교수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직업건강협회 정미경 교육센터장 에코프로비엠 박승민 수석연구원 SK에코플랜트(주) 김동백 프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이영화 교수
내부위원	ESG경영성과실 윤리경영부 차중철 부장 산업안전실 위험성평가지원단 문병두 단장 중소기업지원실 민간협력사업부 최원일 부장 산업보건실 보건계획부 이상근 부장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 조선욱 부장 전문기술실 공정안전부 류재민 부장 중앙사고조사단 과학조사부 권영일 부장 교육혁신실 교육계획부 최동원 부장 안전보건평가실 안전등급지원부 양목규 부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김민준 부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방수일 교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방호장치인증부 박동률 부장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신기술기획부 장재필 부장
담당	김정상 팀장, 이지완 대리
문의	jiwan2@kosha.or.kr / 052.703.0609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기획·디자인	필드가이드 02.6375.2665
인쇄	명일인쇄
홈페이지	www.kosha.or.kr

CONTENTS

Workplace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신성이엔지 “우리는 위험성평가 모범사업장” 06

일터 이야기

현대엘리베이터 “빠르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12

사람 이야기

강성규 교수 “산재도 스마트시스템으로 예방해야” 18

궁금한 일터

한과 “외국인도 반한 한과의 맛” 22

Culture

Color : 색으로 산재를 잡자

“국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하주차장” 28

Note

높은 수준의 안전 문화: Actively Care 32

Presentation 1

2024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회 34

Presentation 2

2024 지역 안전보건포럼 성과 공유 36

People

이미정 대리 “릴스 124만뷰 안전문화 이야기” 38

Knowledge

ESG 경영활동

KOTRA와 안전보건공단 MOU 체결 42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한랭질환 예방/직무스트레스 44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외국인 근로자 12대 안전수칙/개인보호구 착용 46

산업재해 통계 및 사례

매년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48

Information

응급처치

겨울철 ‘골절 사고’ 52

소통 & 공감

소통이 만드는 리더의 품격 54

국내·국제 소식

58

나에게 맞는 이달의 힐링 장소

59

COVER STORY

새해에는 위험성평가로 시작하세요!





우리는 위험성평가 모범사업장

안전 책임 완수하겠습니다

글. 홍난희
사진. 유익상
영상. 워크하드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신성이엔지 편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은 최근 경사를 맞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한 '2024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직원 36명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인 김제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안전 리더'로 지정한 점이 특별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 인식과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찾고, 외국인 근로자를 TBM 리더로 지정하는 등 개선책을 도출해낸 것이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즉 위험성평가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모범사례였다.

이 페이지는 근로자, 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들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이해와 존중으로 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응원 공간이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습니다!"

"가족분들의 안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안전 노력 인정받아 보람 느낀다”

지난달 17일 방문한 김제사업장은 예상과 달리 수상의 기쁨으로 들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상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면서 차분한 모습이었다. 실제 수상을 목적으로 발표대회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체화하고 사내에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참가 이유였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이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근로자와 경영진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또 안전 활동에 매진해야 할 동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안전에 관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도 했다.

끼임 사고 예방 거듭 당부

신성이엔지의 다른 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김제사업장에서도 가장 큰 위험으로 여기는 건 끼임이다. 설비를 변경·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경영진이 근로자들에게 거듭 주의를 당부한 것도 끼임 사고였다. 물론 회사는 사고 예방책을 마련해뒀다. 그것은 신체의 어떤 부분도 끼이지 않도록 설비 개구부가 5mm 이상인 곳에는 반드시 덮개 및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것만 믿고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또 근로자 모두 위험 예방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개구부 위험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마련한 QR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개구부 위험 개선 우수사례를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에 진심인 회사...포상금도 두둑

근로자들은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원활한 소통이 안전 일터 조성에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회사가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 감사를 표했고, 특히 회사의 포상 제도가 힘이 된다고 말했다.

신성이엔지는 위험성평가 정착과 유해·위험 요인 발굴을 독려하기 위해 포상 규모를 약 150% 늘렸다. 이 중 위험성평가 관련 포상금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근로자들은 안전에 대한 회사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회사의 진심에 부응하고 싶어 안전에 더 힘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언급된 스리랑카인 안전 리더 자밀은 근로자를 대표해 안전 다짐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 동료들이 반드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리안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인-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다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서희 공장장은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든든하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최고의 안전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외국인 동료들의 안전,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안전은 내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앞선 기술로 성장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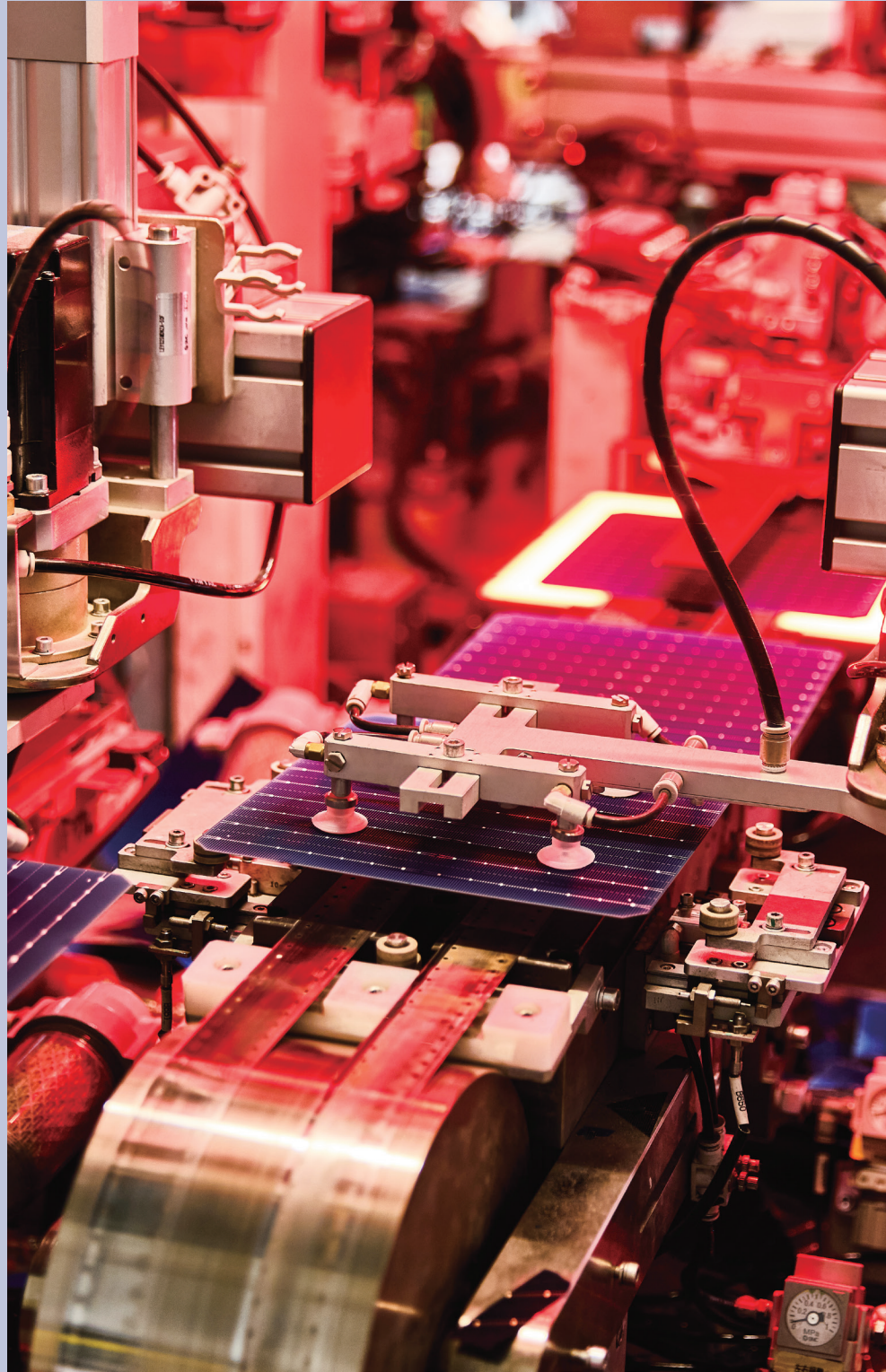
안전관리에서도 앞서 나간다

신성이엔지

글. 홍난희 사진. 유익상

1977년 설립된 신성이엔지는 47년간 앞선 기술과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신성이엔지의 사업 부문은 크게 클린환경과 재생에너지로 나뉜다. 클린환경 사업 부문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을 제조하는 클린룸·드라이룸 설비를 만든다. 2007년 진출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친환경·고출력 태양광 모듈 생산 및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안전도 선제적으로

신성이엔지의 강점은 무엇보다 기술력이다. 1991년 반도체 공장 클린룸의 핵심 장비인 산업용 공기청정기 ‘팬 필터 유닛(FFU)’을 최초로 국산화했다. 이것이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공장의 클린룸 설비로 영역을 확장하는 기반이 됐다. 클린룸은 기온, 습도, 기류, 기압 등 제반 환경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깨끗한 공간을 뜻한다. 반도체 등 초정밀 공정이 수반되는 신성장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환경이다. 한국 주요 산업의 제조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신성이엔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국내 1세대 태양광 기업으로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태양광 모듈 수출 계약을 체결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런 행보에선 신성이엔지의 성장 공식이 보인다. 그것은 시대 변화에 맞게 기술을 새롭게 응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산업의 변화를 빠르게 학습하고, 기술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참 전부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2017년 환경안전 비전 선포

신성이엔지는 진작부터 전사적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마련했다. 2017년 대표이사가 환경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환경안전팀을 환경안전사업부로 확대 개편했다. 2019년엔 환경안전사업부를 환경안전센터로 격상시켰다. 2년 만에 또다시 안전보건 컨트롤타워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신성이엔지의 안전 실행력을 방증하는 것으로, 기업의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엔 안전관리를 더 촘촘하게 한다. 빈틈없이 안전을 지키고 근로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절차도 마련했다. 우선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양방향 EHS 포털을 개설했다. 또 월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차 점검을 시행해 각 사업장에 자율안전보건체계가 정착되도록 했다.

전 근로자가 순환 참여하는 환경안전 서포터즈도 조직했다. 이들은 환경안전위원과 경영진이 참석하는 월간 안전보건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직접 제조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를 회의와 점검에 참여시켜 경영진이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디테일까지 챙기는 것이다.

또 모든 회의 시작 전 임직원들은 안전보건 영상과 10대 원칙 동영상을 시청한다.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로 보이지만, 신성이엔지 측은 한순간도 안전을 잊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참 전부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01 클린룸 장비 제조 모습

02 월간 안전보건경영위원회

03 환경안전 서포터즈 활동 모습



01



02



03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 이벤트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특히 현장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TBM 리더 집체교육을 본사가 직접 주관한다. 사업장별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는 건 기본이다.

포상과 인센티브도 다채롭다. 매월 자율운영체계 확립에 기여한 사업장과 우수한 TBM 리더를 선발해 포상한다. 환경안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 발굴 활동 우수자도 선정해 시상한다. 포상금 규모도 150% 늘렸다. 자발적인 유해·위험 요인 발굴을 독려해 상시 위험성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회사의 통 큰 결단이었다. 이 중 위험성평가 관련 포상금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신성이엔지 경영진은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근로자 가족까지 참여하는 이벤트를 매년 개최한다. 환경안전보건 그림그리기 대회다. 이 대회는 가족과 함께 안전을 되새기는 자리여서 근로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꾸준한 안전 노력...고용노동부 장관상 결실

오랜 시간 다각도로 해온 안전활동은 결실들을 맺었다. 2018년에는 용인사업장이 안전경영대상 제조업 중소기업 부문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말엔 김제사업장이 공단이 주최한 '20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외국인 안전 리더 지정 외에도 선진적인 위험성평가 체계를 전 사업장에 확대하고 실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환경 서포터즈 제도, 안전백서 제작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성이엔지는 2025년에도 안전 일터 실현을 위해 전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목표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ZERO'다. 상시 위험성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어 등 주요 5개 국어로 안전보건



자료를 만들어 교육할 예정이다. 또 신성이엔지 3대 사고와 관련한 픽토그램 안전표지 통일화를 추진 중이다. ‘고위험 10대 안전수칙’ 수립도 새해의 추진 과제다. 지금까지 수집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신성이엔지 맞춤형 안전수칙을 정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인정받고 있는 위험성평가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가이드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

신성이엔지의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환경, 안전, 보건의 경영의 제1 원칙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모든 의사결정에서 환경, 안전, 보건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이 원칙을 고수해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엘리베이터는 현대인의 이동에 필수가 됐다. 아파트에서, 사무실에서, 쇼핑몰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 내린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기업이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39.4%. 국내 승강기 신규 설치 17년 연속 1위. 국내 승강기 유지 관리 9년 연속 1위(2023년 기준). 숫자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인공이다. 1984년 설립된 현대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설비의 설계와 생산, 유지 보수를 주력으로 하는 종합 이동 솔루션 기업이다. 지난 40년간 진화하는 도시 건축의 트렌드에 발맞춰 기술을 혁신하며 성장해왔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생각하는 엘리베이터 기능의 핵심은 세 가지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안전'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삼고 실천하고 있다. 글. 홍난희 사진. 유익상

빠르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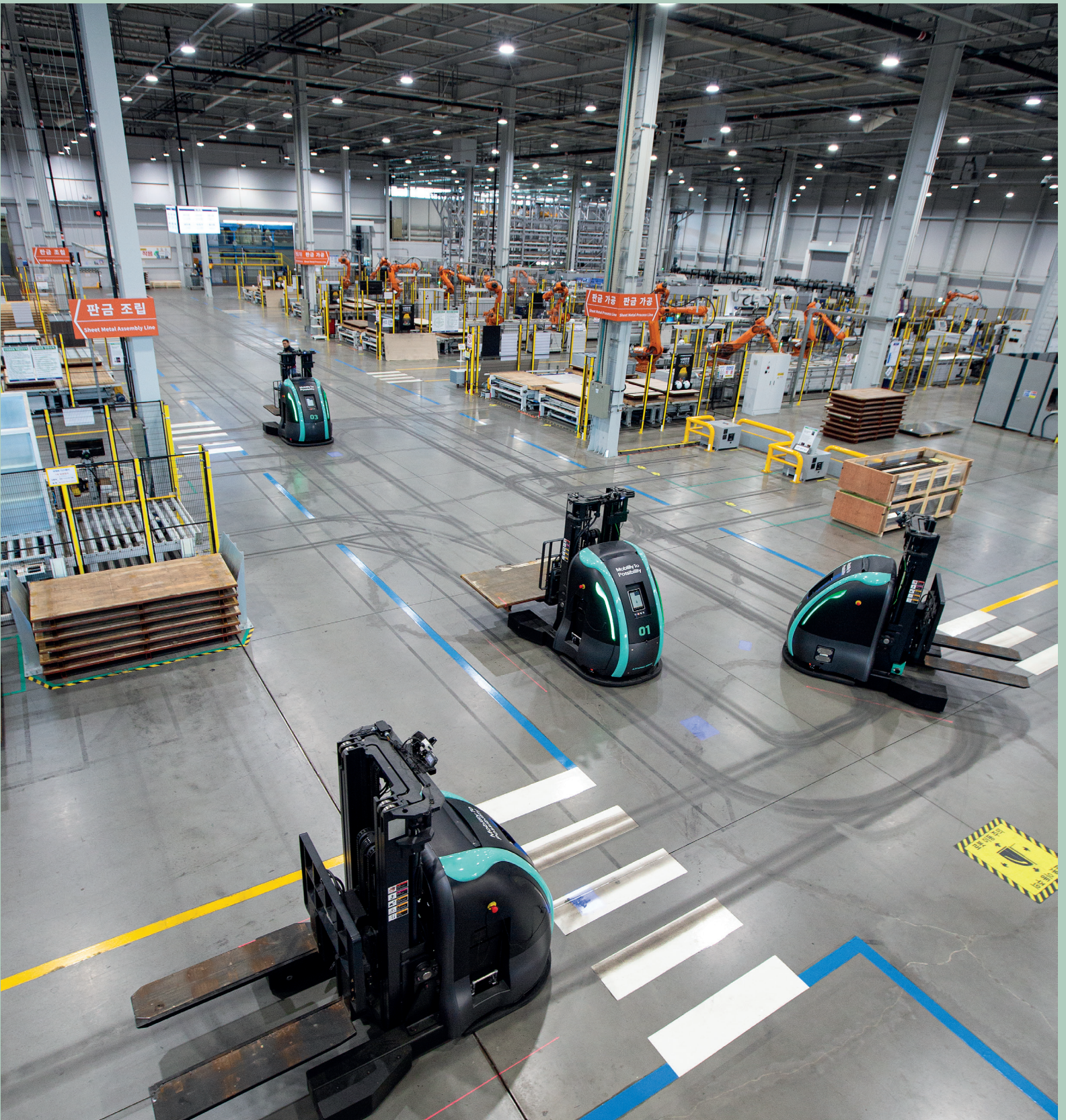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1등 기업 안전도 1등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으로’...책임안전경영 실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현대엘리베이터는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안전문화 활동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북돋아 스스로 실천하게 해야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안전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관리자와 담당자 중심의 안전’에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으로의 전환이다. ‘책임안전경영’을 슬로건으로 삼아 경영진과 관리자, 근로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의식과 안전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한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했고, 안전 핵심성과지표(KPI)를 운영해 안전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 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월간 안전 리더십 회의를 열어 각 사업본부의 재해율 감소를 독려했다.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 리뷰도 실시하고 있다. 작업장의 실질적 책임자인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코칭도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고 보고 기준 및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하기도 했다. 어떤 절차에 따라 보고할지,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할지, 매뉴얼을 마련해 허둥대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매뉴얼로 정했다.



2022년 총주로 이전...스마트팩토리로 안전 UP

마침 현대엘리베이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에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 그해 2월 경기 이전에 있던 본사와 공장을 충북 충주로 이전한 것이다.

새로 마련한 일터는 안전도 지켜주는 스마트팩토리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 공장에선 생산 과정의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자동화율이 80%에 이른다.

엘리베이터 도어와 천장, 바닥 등을 만드는 판금동에선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철판을 자른다.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키는 권상기를 제조하는 TM동은 24시간 무인으로 가동된다. 이곳에선 무인 지게차와 무인 운반차가 곳곳을 누비며 제품을 실어 나른다.

안전에도 적극 투자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용 드론을 운영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화포를 배치했다.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구역에도 소화설비를 증설했다.

이처럼 만반의 안전 태세를 갖춰도 각종 기계·장비가 가득 찬 생산 현장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크레인 이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지게차가 돌아다닌다. 이런 공정에서는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위험성평가에 더욱 집중했다. 특히 중점을 둔 건 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주제로 교육 영상을 제작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실습 중심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인터뷰’도 운영 중이다. 이는 아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상체험(VR)을 통한 안전교육도 한다. 일반적인 시청각 교육보다 근로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덕에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하고 있다.

작업자와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 합동안전점검’도 주 1회 실시 중이다.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개선 TF’도 구성했다. 위험요인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 후 의견 수렴을 위한 조직이다. 충주공장에서 일하는 약 150명의 협력사 근로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반출·입 화학물질 적정성 검토, 화학물질 사용관리 현황 점검, 비상사태 시나리오 작성 및 합동훈련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도 자율적으로 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설치·수리 현장 위한 MMS...다음 작업자와 정보 공유

제조 현장 밖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 영역은 넓게 펼쳐져 있다. 설치 및 점검과 수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작업 환경도 대단지 아파트부터 초고층 빌딩까지 제각각이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지관리 중인 엘리베이터는 20만대. 충주공장 외에도 작업현장 20만곳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대표적인 것은 떨어짐과 끼임이다. 이런 재해의 위험은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적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점검하고 수리해야 하는 현장 설비는 대부분 오래돼 낡았다.

이 같은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는 모바일 전산시스템(MMS)을 개발했다. 개별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아차사고 사례를 점검 작업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는 장치다. MMS에 기록된 내용은 차후 같은 현장을 방문하는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BM 활동과도 연계시켰다. 전국에 흩어진 작업자들이 언제든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설치 및 점검 현장에서 작업하는 파트너사를 위해 안전작업 지침서와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기술회보를 발행한다. 파트너사가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채용된 인력에게는 기술지원 교육을 제공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고객의 안전 보장에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 관리다. 그래서 구성한 것이 시민재해 전담조직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 보수의 개선점을 찾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특히 제품 개발 과정을 5개(Gate 0~5) 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여기엔 관련 임원과 관리자, 실무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한다. 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안전수칙을 부착해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물엔 삽화를 넣어 이용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밖에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주제로 엘리베이터 사용자들의 안전의식 강화 활동도 하고 있다.



파트너사에도 인센티브...안전활동 참여 동기 부여

근로자들이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캠페인도 진행한다. 우선 ‘당신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작업은 없습니다’라는 슬로건 패치를 부착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패치 부착으로 안전 구호에서 한시도 눈을 땔 수 없게 되면서, 저절로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효과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칭찬합시다 캠페인’ ‘잘못된 작업방법 바로잡기 캠페인’ ‘안전보건 영상 및 사진 공모’ 등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두드러진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도 시행 중이다. 그룹웨어를 통해 운영 중인 ‘안전제안 & 아차사고’ 참여자 중 우수 제안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팀을 분기별로 선정해 대표이사 표창과 상금을 수여한다. 파트너사 근로자 포상 제도도 마련해 격려하고 있다. 또 우수사례 집을 발간해 근로자에게 안전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경영진은 발로 뛰며 안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임원과 지사장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 현황을 직접 확인한다. 현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살피고, 작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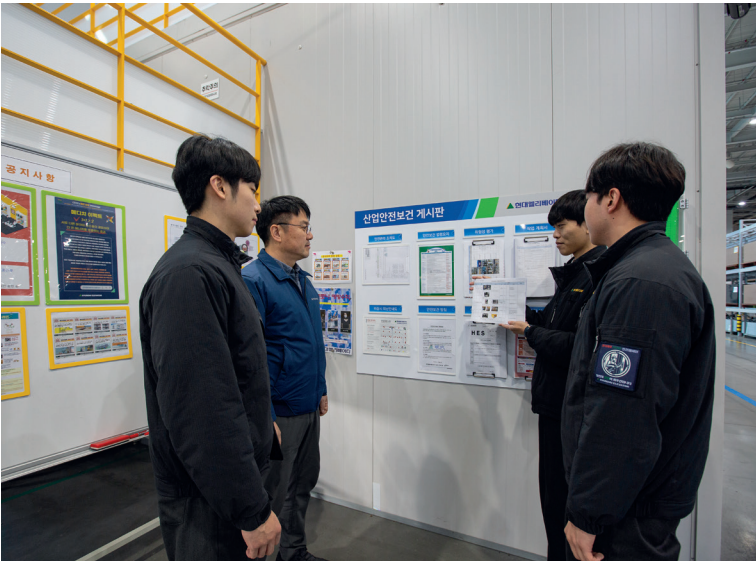
1등 기업답게, 안전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앞서 언급한 엘리베이터의 세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안전일 것이다. 아무리 빠르고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누구도 타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만큼 엘리베이터 산업에서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안전경영 강화’를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 전략과제를 정해 실천하고 있다. 이른바 ‘3개년 안전경영 전략 추진 로드맵’이다.

지난해 과제는 책임안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 리더십 강화였다. 올해는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내년엔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안전문화가 탄탄하게 뿌리내려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3개년 로드맵의 중간이다. 지난 1년을 점검해 개선하면서 안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진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미 기술경쟁력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제쳤다. 안전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업계 1등 기업에 걸맞게 안전의 뿌리를 탄탄하게 내리는 것, 앞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나아갈 길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안전경영 강화’를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 전략과제를 정해
실천하고 있다.”**



전용원 현대엘리베이터 CSEO

**“공장 자동화로 위험 제로화
무한 책임감으로 안전 지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는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까지 관리 영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전용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CSEO)는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즉 ‘엔드 유저’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종합적인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제품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지켜주기 위해 고객에게 미치는 위해 요인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전용원 CSEO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특징점도 소개했다. 첫째로 꼽은 건 2년 전 충주로 이전한 새 공장이다. 그는 “공정을 자동화해서 작업 환경의 위험 요인을 거의 제로화했다”며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안전한 작업장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촘촘하게 서비스망을 갖춘 것도 장점으로 들었다. 그는 “그 덕에 빠르게 출동해서 우리 고객들이 늘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25년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전용원 CSEO는 ““안전사고 제로”는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생각을 해도
사고 안 나야 정상

산재도
스마트시스템으로
예방해야"

●

가천대학교
강성규 대학원장



가천대학교 강성규 대학원장은 우리나라 직업병 연구의 산증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직업병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산업보건 관련 국제학회의 수장으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또 가천대 길병원 국민검진센터 소장을 맡아 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기관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 홍난희 사진. 김현철

“안전 분야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산업안전 문제와 노사 문제의 분리”

중대재해 예방 관련 현 정부 첫 노사정 합의 이끌어

2023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 보상과 산재 예방으로 분리하고, 중대재해 사고 원인 조사 기능의 체계와 기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에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강 대학원장은 합의 도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장을 맡아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설정에 기여했다. 그가 핵심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 이는 산재가 발생하면 개별 사업장이 그때그때 책임을 지는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안전설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산재가 발생하면 흔히 근로자의 실수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잘못된 거죠. 애초 작업자가 다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잠깐 단생각을 했다고 죽거나 다치는 게 당연한가요? 안전모 쓰고 안전벨트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산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 문제와 노사 문제의 분리다. 안전 문제가 생겨도 임협이나 단협에 부딪혀 개선이 더디지지 않도록 노사 합의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고 국제학술단체 수장으로 활약

강 대학원장은 2022년 2월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국제산업보건 학회(ICOH) 제16대 회장을 맡았다. ICOH는 전 세계 노동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 등을 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단체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산재 예방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전문적인 조언을 하기도 한다.

2027년까지 연임이 확정된 그는 국제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ILO 총회에서 이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4년 4월 94개국 1800여 전문가들이 참여한 학회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산업보건 안전 향상을 위한 '마르케시 선언'을 채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근로자 건강 보호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건강 보호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책임”





“30년간 도움을 준 많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 덕에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한 분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산업보건 정책 마련해야”

강 대학원장의 다음 목표는 뭘까. 뜻밖에도 “후배들에게 맡겨두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후진국에서 태어나 ‘하면 된다’ 식으로 일해 온 기성세대보다 선진국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더 뛰어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산업보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수상 소감 대신 주변에 고마움을 전했다. “30년간 도움을 준 많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 덕에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한 분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반한 한과의 맛, 비밀을 찾아서"

글. 박정미 사진. 유익상

강릉 사천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소하고 달콤한 곡물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마을을 만난다. 한과마을이다. 먹을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전통 과자인 한과를 K디저트로 성장시킨 선미한과를 찾았다. 이 특별한 한과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기 위해서.



선미한과

“우와, 이게 정말 한과유과예요?”

강릉 한과마을에서 한과 카페를 겸하고 있는 선미한과. 김성래 대표는 이곳의 유과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한과는 보통 유과와 약과를 포함하는데, 선미한과에서는 유과가 생산량과 매출의 90%를 차지한다.

유과는 찹쌀 반죽을 동그랗게 튀겨내고 조청을 발라 튀밥, 깨 등을 입힌 과자다.

선미한과는 ‘특별한 유과’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

“기계로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지만,
맛이 다르거든요.
가마솥에서
천천히 익혀야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납니다.”

30일의 마법

선미한과의 대표 제품인 ‘찹쌀유과’가 완성되기까지는 꼬박 30일이 걸린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20일간의 발효 과정이다. 찹쌀을 물에 담가 자연 발효시키는 이 과정에서 한과 특유의 깊은 맛이 만들어진다.

“계절마다 온습도가 달라 발효 시간도 조절해야 해요. 여름엔 17~18일, 겨울엔 더 오래 걸리죠. 예전에는 경험으로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 과학적으로 관리합니다.”

김 대표의 설명이다.

발효가 끝난 찹쌀은 깨끗이 씻어 콩물과 함께 반죽한 다음 가마솥에서 4시간 이상 찐다. 그 뒤 찹쌀의 조직에 탄력을 주고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파리치기를 하는데, 찹쌀을 건조하고 일정한 크기로 성형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이다. 평탄화 작업으로 어느 정도 찹쌀이 냉각되면, 손가락 모양의 유과를 만들기 위해 가로 0.5cm, 세로 2cm 크기로 성형을 한다. 이후 한 번 더 건조 과정을 거쳐 유과바탕을 만들어 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 이 과정이 끝난 후 유통을 하기 전 건조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

“바탕 공정 중에서도 건조 과정이 가장 까다로워요. 보통 고추건조기 등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시간을 들여서 건조합니다.”





가마솥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

특히 눈여겨볼 점은 증자를 기계화한 다른 업체와 달리 여전히 가마솥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기계로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지만, 맛이 다르거든요. 가마솥에서 천천히 익혀야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납니다.”

선미한과의 아이덴티티는 ‘부드러운 식감’이라고 김 대표는 재차 설명했다. 처음에는 이 부드러움이 오히려 골칫거리였다. 조청을 묻히는 공정이나 택배 과정에서 제품이 쉽게 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선미한과만의 특별한 가치로 승화시켰다. 부드러운 식감은 상온에 두고 먹을 때 더 잘 살아난다. “보통 한과는 냉장 보관을 권하지만 차가운 상태에서는 조청도 얼어 단단해지고, 사르르 녹는 식감도 덜해 부드러운 본연의 맛을 잘 느끼기 어려워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을 토대로,
본질은 지키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디저트를 위한 시도

김 대표는 2018년 부모님의 사업장인 한과공방에 합류한 뒤 제품 개발과 협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곳 유과는 15가지 이상의 맛을 갖췄다. 찹쌀, 포도, 백년초 등인데 가장 인기 있는 유과는 기본인 찹쌀유과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커피, 포도, 유자가 차별화된 맛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커피한과는 2019년 유명 커피 회사 원두를 사용해 개발했으며, 특허 출원도 했다. 이뿐 아니라 유명 식품 회사와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과는 명절용, 제수용이란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디저트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때 현지에서 한과 팝업 스토어가 열렸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한국지사의 명절 선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제 한과는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디저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티시에와 협업한 한과 디저트를 갤러리아 백화점(강남)에서 선보였는데 뭔가 특별한 디저트로 인식되어 반응이 좋았어요. 프랑스 디저트 ‘에클레르’를 연상시킨다고도 하더군요.”

이 디저트는 연말 분위기에 맞춰 초청 대신 다른 것을 묻히고 앙금이랑 젤리 같은 것을 올려 비주얼로도 주목을 받았다.

“할머니의 비법은 있고, 비효율은 개선”

이 업체의 역사는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의 외할머니는 한과로 유명한 강릉 최씨 가문으로 학교 근처에서 최씨 방앗간을 운영하며 특별한 날이면 동네 아이들, 주민들과 한과를 나누었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을 토대로, 본질은 지키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 출신인 김 대표는 연구원 시절의 경험이 품질 표준화와 생산 공정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품질에 대한 집념

회사의 성장은 2018년 KBS 방송이 방영한 한과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이후 가속화했다. 이때가 김 대표가 부모님의 한과공방에 합류한 시점이기도 하다. 방송 이후 매출은 20배로 증가했고, 직원도 11명의 상주 인력을 보유하게 됐다. 건물도 신축하고 해썹(HACCP) 인증도 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는 품질 관리에 가장 큰 공을 들인다. “단순 반복 작업은 기계화했지만,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합니다.”

원재료 선정에는 조금도 타협이 없다. 찹쌀은 100% 백옥찰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재료는 한과마을 내에서 조달한다. 유자 같은 지역적 특색이 강한 재료는 원산지를 고집한다. “향을 위해 첨가물을 넣으면 소비자가 딱 알더라고요. 저희는 최대한 재료 선별 사용에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도 철저하다.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의 생산설비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받아 위험성평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강력한 팬을 돌려 유증기가 잔류하지 않도록 합니다.”

김 대표는 부모의 한과 사업에 합류한 뒤 좌식 작업을 입식으로 바꾸는 변화를 시도했다. 제품의 위생과 효율을 위해서인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3일씩 기존 작업 방식과 번갈아 가며 해보고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데이터를 내서 설득하니 수긍하더라고요.”



최고급 문화상품으로 키우고 싶어

“‘에르메스’나 ‘파텍필립’ 같은 명품 브랜드처럼, 한과도 최고급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 대표의 포부다. 이곳은 프리미엄 한과를 사려는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SNS나 팝업 행사를 통해 찾고 있다. 특히 유과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수출을 위한 제2공장 건설도 진행 중이다. “핸드메이드 방식이다 보니 생산량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최고의 한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알던 한과 맛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김 대표는 이런 반응을 접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정보 더하기

최대 한과 생산지, 강릉 한과마을

강릉 한과마을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중리 일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한과 생산지다. 현재 약 20개의 한과 제조업체가 성업 중이다. 마을 전체가 전통 한과 제조 기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식생활에 기름과 꿀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 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되며 한과에 관한 구체적인 문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로 알려졌다. 특히 강릉 한과는 역사가 깊다. 맛이 뛰어나 조선 시대에 왕에게 진상됐다고 한다.

현재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등 한과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을에는 ‘강릉 한과축제’를 개최해 한과의 맛과 멋을 알리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저트도 천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강릉 한과마을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커피문화 1번지’인 강릉의 유명 브랜드 커피를 활용한 커피한과, 초콜릿을 활용한 초코한과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한 제품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간 15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한과마을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한국 식문화의 보존소 역할을 하는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2년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과 생산량은 5만9000톤으로 2020년 대비 25.8% 증가했다.



"국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하주차장 선보인다"

현대건설

“위험을 예방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안전 색채와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었다.”



어둡고 시인성이 낮은 지하 주차 공간이 모두가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현대건설은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UD)을 적용했다.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색약자들이 구분하기 쉬운 색도 배색했다. 또한 가독성과 식별력을 높인 서체로 노안이나 저시력자의 직관성까지 고려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나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도 배려한 픽토그램을 사용했다. 현대건설이 자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등에 올해부터 적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지하주차장을 미리 살펴보자.

글. 박정미 사진. 유익상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하주차장에서 당황한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기둥이 반복적으로 들어서 있어 자신의 위치와 출입구의 방향을 알기 어렵거나, 교차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오는 등 위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주차장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직관적인 길찾기를 돕기 위해서 안전 색채와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었다.

현대건설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이 프로젝트에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란 이름을 붙였다. ‘히어 앤 썸웨어’는 모든 운전자, 보행자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의미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민영 익스테리어팀 책임매니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웨이파인딩(효과적인 길 찾기) 시스템을 더한 것으로, 시각 약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 입주주민들의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 유니버설 디자인(UD):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범용(汎用) 디자인. 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 등에 적용된다.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차량 통행이 복잡한 교차로의 바닥과 기둥에는 명도가 낮은 색을 적용해 먼 거리에서도 위험 구간을 인지하도록 공간감을 부여했다.”

차별 없고 혁신적인 지하주차장

현대건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하이 앤 씬웨어’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색상

선택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을 선택했다.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는 고채도와 고명도의 안전 색채를, 입주민의 이동을 유도하는 곳에는 중채도와 형광색을, 그 외의 배경이나 환경 색채에는 무채색을 적용했다. 상황에 따라 컬러를 차별화한 것이다.

특히 차량 통행이 복잡한 교차로의 바닥과 기둥에는 명도가 낮은 색을 적용해 먼 거리에서도 위험 구간을 인지하도록 공간감을 부여했다. 또한 바닥, 벽, 기둥에는 인포그래픽과 색상으로 이동 동선, 출구 등을 표기해 명료함을 더했다.

이러한 색채 계획은 색채 분야 경쟁력을 가진 K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해 수차례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거쳐 최적화했다.

#글씨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한 판독성 높은 유니버설 디자인 서체를 적용했다. 노안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글자의 크기와 간격, 굵기 등을 세심하게 조정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최적화했으며,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하도록 설계했다.

#픽토그램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나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등의 픽토그램을 만들었다. 방향, 출구, 안전시설 등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정보를 전달한다.



픽토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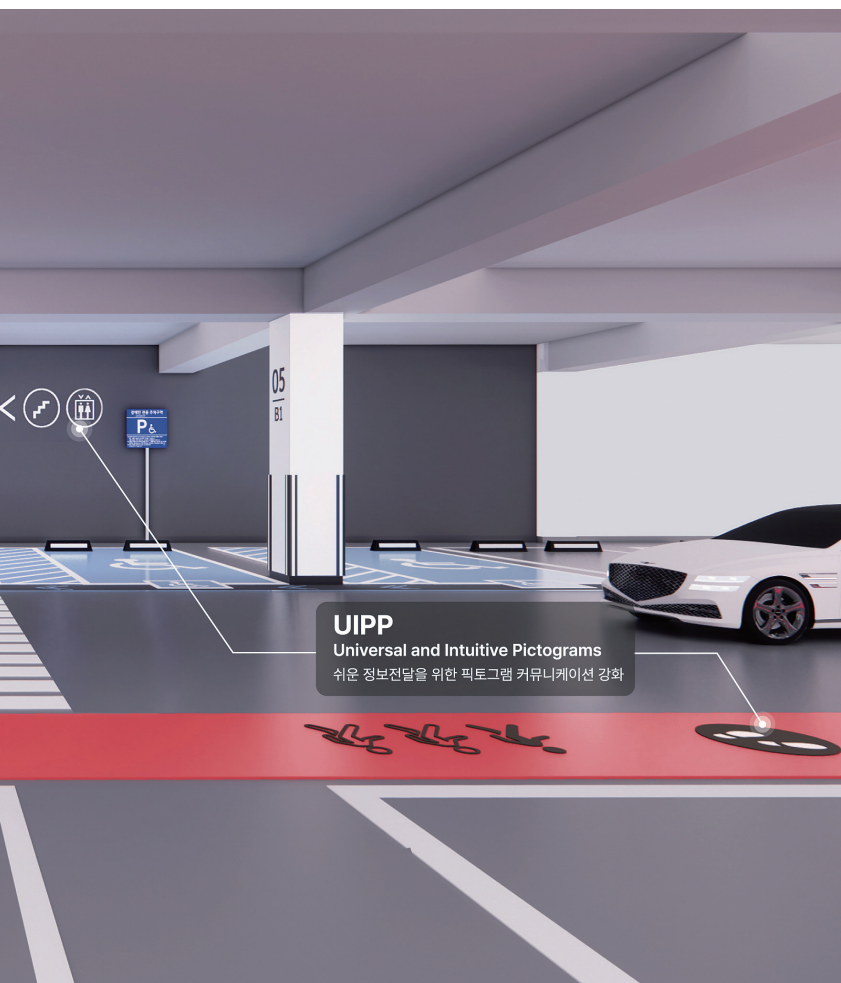
아트월





이외에도 그래픽 아트월과 상징적인 심벌 혹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여 쉽게 길을 찾도록 했다. 이는 공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만들어 내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김 책임매니저는 “예를 들어 코엑스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1층에 있는 별다방 도서관에서 보자’고 하는 식으로, 상징적인 공간을 경험하여 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컬러뿐만 아니라 서체 및 픽토그램 등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도입한 것은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초다.



“컬러뿐만 아니라 서체 및 픽토그램 등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도입한 것은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초다.”

심미보다 안전이 최우선

김 책임매니저는 “최근 비주얼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트렌드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시설 정보의 시인성과 직관성을 저하시켰다”며 “이로 인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시각 약자들은 정보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2차 사고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유니버설 디자인과 웨이파인딩을 결합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노령화, 다민족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히어 앤 썸웨어’가 다양한 입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을 주길 회사 측은 기대했다.

김 책임매니저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색약자, 외국인, 노약자 등 거주민 모두를 고려한 섬세한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 Actively Care

글. 문광수 교수_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처럼 학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안전에 대한 가치와 행동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	정의
Schein(1996)	안전문화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태도, 신념 및 행동의 패턴으로, 안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책임을 나타낸다.
Reason(1998)	안전문화는 조직 내에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과정을 포함하는 문화로, 이는 개인, 그룹 및 조직 차원에서 형성된다.
Hudson(1999)	안전문화는 조직 내에서 안전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행동의 패턴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와 행동이 조직적으로 수용되고 증진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Hopkins(2002)	안전문화는 조직 내에서 안전을 위한 가치와 행동이 공유되는 상태로, 안전을 위한 책임과 관심이 모든 구성원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이다.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는 실제로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안전 심리학(Safety Psychology) 분야에서는 안전에 대한 ‘Actively Care’라고 지칭한다. 이는 서로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챙겨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의 최종 목표는 지시와 명령에 따라 안전 규정과 작업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을 준수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 더 나은 안전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일 것이다.

이상적으로 안전한 기업의 모습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상호작용하는 동료들을 식구처럼 생각하고 서로서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즉 모든 직원이 동료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 중에도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Actively Care를 실천하고 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들 옆을 스치려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모두가 친구나 가족들에게 “위험하다, 안쪽으로 들어와”라고 할 것이다. 이때 친구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알았어, 고마워”라며 위험을 피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일터로 가져온 개념이 Actively Care이다.



“안전한 기업의 모습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상호작용하는 동료들을 식구처럼
생각하고 서로서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듀폰(Dupont)사의 Bradley Curve에서도 안전문화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전 구성원(경영진, 리더, 근로자)이 함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동료의 안전 준수를 도와주고 안전 관련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을 서로 챙겨주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만족스러워한다. 안전이 귀찮고 번거로우며, 현장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인식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일하는 선후배, 동료들이 서로의 안전을 챙겨야 할까? 안전 심리학에서는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경영진과 관리자 등의 안전 리더십이 높으면, 안전 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실행되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규정과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고가 감소한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관리자와 경영진도 완전하지는 않다. 모든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할 수도 없고 안전 관리 시스템도 완벽하게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마지막 방어막(barrier)’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 도구, 설비, 장비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안전 규정과 절차, 교육과 훈련 체계와 같은 안전 관리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 작업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작업 시간의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바쁘면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어떤 조직의 변화를 추구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즉 이상적인 상태(방향, 지향점)를 모른다면, 변화를 위해 투자하는 자원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안전한 작업상을 확립해야 한다. 즉 안전에 대한 기업 전체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Hopkins, A. (2002). Safety Culture, Mindfulness and safe behaviour: Converging ideas?, OHS regulation, Working Paper 7.

Hudson, P. (1999). Safety culture-theory and practice. The human factor in system reliability is human performance predictable?, 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 Meeting Proceedings, 32.

Reason, J. (1998). Achieving a safe culture: Theory and practice. Work & Stress, 12(3), 293-306.

Schein, E. H. (1996). Culture: The missing concept in organization stud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2), 229-240.

1024개 단체 함께한 안전 활동

2024년 성과 밑거름 삼아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글. 홍난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이하 안실단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2일 열린 ‘2024년 안실단 우수사례 발표회 및 워크숍’이다. 이 자리에선 2024년 안실단 운영의 결과와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2025년 안실단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안실단에 참여한 지자체, 공공기관, 노사 단체 등 민간 단체는 총 1024개였다. 출범 첫해인 2023년 867곳이 참여한 데 비하면 약 20%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여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문화 활동들을 전개했다. 지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문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하는 협업 활동 등이 호평을 받았다. 지역 특화 활동도 돋보였다. 지역축제에 안전문화 홍보부스를 설치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안전수칙을 교육했다. 안전 캠페인과 안전문화 실천 서약, 4대 금지 캠페인 등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2024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회

권역별 안실단 우수 활동도 관심

서울권역 안실단은 SK브로드밴드, CJ ENM과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운 홍보 방식을 도입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메가시티’ 서울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고심한 결과였다.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선 케이블TV에 안전 홍보 문구와 영상을 송출했다. CJ ENM을 통해선 이 회사가 제작, 주최하는 모든 공연 전에 안전 영상을 내보냈다. CJ ENM 보유 채널에도 4대 금지 캠페인과 안전 수칙의 내용을 담은 자막을 송출했다. 이를 통해 홍보비는 줄이고 홍보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었다.

부산권역 안실단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전 주제를 ‘건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본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책’으로 정했다. 수상작은 민간 건설현장에 배포돼 재해 예방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구권역 안실단은 ‘안전 다짐 실천 서약(MY SAFETY RULE)’ 캠페인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캠페인은 산업 현장 관계자, 사업주와 근로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됐다. 이 캠페인 덕에 지역에 안전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다. 대구 국제마라톤대회와 연계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눈에 띈다. 대회장에 부스를 마련해 홍보했으며 대회와 연계한 SNS 홍보도 했다. 한국도로공사와도 협업해 공사가 보유한 휴게소의 시설물을 안전문구 홍보에 활용했다.

“2024년 안실단 운영의 결과와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2025년 안실단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

충부권역 안실단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인천’을 모토로 안전의 생활화를 도모했다. 특히 추락재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보호구, 안전모 착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전모DO 해요!’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역축제에 부스를 마련해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직접 안전모를 착용해보고, 룰렛돌리기 등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또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해 시민들이 마스크와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대응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경기권역 안실단은 캠페인에 집중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전나눔 행복드림 캠페인’을 3차에 걸쳐 펼쳤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사례 책자와 안전모, 소화기, 추락위험 표지판 등을 배부했다. 시민 대상으로는 경기마라톤대회, 화성 뱃놀이축제, 안양FC 축구경기 등 행사와 연계해 ‘안전머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롯데칠성, 빙그레, 팔도 등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전문구가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토록 했다.

강원권역 안실단은 임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산림사업장 재해 예방에 집중했다. 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켰다. 축제 현장에는 VR 체험장 등을 마련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했다. 임업 관계자들이 많이 모이는 산나물 축제에서도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10대 임업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전파했다.



광주권역 안실단은 모기업과 협력사가 상생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광주지역의 대표 제조업체들은 협력사의 안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순회점검을 했다. 22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물품과 위험성 평가 등을 지원했다. 민관과 언론이 협업해 TV 캠페인도 진행했다.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대전권역 안실단은 정부와 노사 단체,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동행클럽을 구성했다. 롯데웰푸드와 성경식품, 선양소주는 제품 포장에 안전문구를 새겼고,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KT서비스 남부는 근로자의 안전모 등에 안전문구를 새겨 안전 메시지를 전파했다. 성심당은 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네이버에는 ‘오늘의 안전 일터’ 밴드를 개설했다. 이는 지역 내 안전보건 관계자 누구라도 안전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안실단의 활동은 올해도 이어진다. 안실단은 안전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등의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2025년 활동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소통의 장' 안전보건포럼

자생적 안전활동 촉진한다

글. 홍난희

지난해 12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지역 안전보건포럼 성과 공유 콘퍼런스'(이하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2024년 처음 운영된 각 지역별 안전보건포럼의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 3대 키워드, 개방성·자율성·다양성

안전보건포럼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전달 및 운영의 한 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관서에 시달, 사업장으로 전달하는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실제로 일방향 소통에서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장의 요구도 있었다. 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나 노하우를 공유, 활용하고 싶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니즈를 채울 수 없었다. 그래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기에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지역 안전보건포럼이 탄생했다.

'포럼'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이다. 일단 사업장, 근로자, 유관 기관 등 참여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공공은 뒷받침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활동

2024 지역 안전보건포럼 성과 공유 콘퍼런스

"포럼이 자생적인 안전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전보건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

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토론과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전국에서 안전보건포럼들이 출범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지역 안전보건포럼의 우수 활동 사례들이 발표됐다. 2025년에 포럼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도 했다.

5개 포럼, 우수사례 선정

5개 포럼의 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공 주도 우수사례로는, 울산지역본부의 공공 주도 자동차 부품사 안전협의회의 활동이 꼽혔다. 이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공단이 주도한 포럼으로 울산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품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공단은 부품사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주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고 강의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청장이 안전문화 대담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우수 지역협의체 사례로는, 제주지역본부의 소방시설공사사업 안전보건포럼이 선정됐다. 제주 소방시설협회는 회원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포럼 구성을 공단과 협의했다. 그 결과 협회와 공단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4대 업종(조경공사업, 소방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해체공사업)을 대상으로 한 포럼을 조직했다. 공단의 강의, 고용노동부와의 토론, 협회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영세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지속적 운영의 우수사례로는, 전남지역본부의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포럼이 뽑혔다. 전남 서남권 경제의 중심축인 조선업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준비한 포럼이다. 조선업종 7대 대기업이 주도해 매월 기업별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상생포럼을 운영했다. 노동청과 공단은 포럼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했다. 정기적으로 열린 포럼은 하청업체의 안전수준 향상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의체 주도 우수사례로는, 광주광역시본부의 제조업 안전보건포럼과 대전세종광역시본부의 대전·세종·충청권역 건설안전 리더 통합 포럼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본부의 제조업 안전보건포럼은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5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안전



협의체를 구성했다. 노동청과 공단, 협의체 회장단이 매월 고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에 나섰고,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에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전세종광역시본부의 대전·세종·충청권역 건설안전 리더 통합 포럼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포럼은 건설기계장비 사고 예방 세미나, 안전 우수 기업 현장 탐방, 건설업 재해 예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했다.

“안전보건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

공단 측은 안전보건포럼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절실하게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게 다가가는 좋은 통로”라며 “이들이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쉽게 접해서 스스로 정책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럼이 자생적인 안전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전보건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안젤이'를 입고 뛰는 5km,

릴스 124만뷰 안전문화 이야기"

글. 박정미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시본부 이미정 대리



2024년 4월 7일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수많은 러너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형의 탈을 쓴 러너.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시본부 이미정 대리다. 최대한 가벼운 차림으로 달리기에도 힘에 겨운 마라톤대회에 그 무거운 인형 탈을 쓴다고? 하지만 그녀는 다 계획이 있었다. 공단의 산업 재해 예방 캐릭터인 안젤이를 입고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것. 그 결과 릴스 124만뷰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마라톤과 안전문화, 이색적인 조합

이 대리는 이전부터 대구마라톤의 10km 코스에 종종 참가했다. "행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언론사들도 대거 참여하는 이 자리가 안전문화 홍보에 최적의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안젤이를 입고 뛰면 더 눈에 띄는 거라 확신했거든요." 그녀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안젤이 탈을 쓰고 마라톤에 참가해 1차적으로 시각적인 관심을 끌고, 이와 함께 직장인의 애환이 담긴 사진으로 2차 홍보 효과까지 노린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SNS에 올라온 사진 속 이 대리의 모습은 '월급 쓰다'라는 멘트와 함께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달리기에 그치지 않고,
대회 부스 곳곳을 돌며
열사병 예방과 공단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도 힘썼다.”

“넘어진 안젤이, 일으켜 세워준 마라토너들”

하지만 마라톤은 만만치 않았다. 무거운 안젤이 탈로 인해 속도가 점점 느려졌고, 결국 그녀는 10km 코스를 완주하지 못하고 5km에서 마무리해야 했다. 오히려 이 상황은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었다.

“제가 뛰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는데, 이 인형의 상체가 무거워 혼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넘어진 김에 잠깐 쉬자’ 하고 누워 있는데, 뛰던 분들이 넘어져 있는 안젤이를 귀엽게 봐주시고 다 같이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때 사진이 있는데 뭔가 다 같이 힘을 모았던 장면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녀는 열사병에 걸릴까 걱정된다는 말도 들었지만, 마라톤이 이른 아침에 시작되어 선선했기에 선택한 퍼포먼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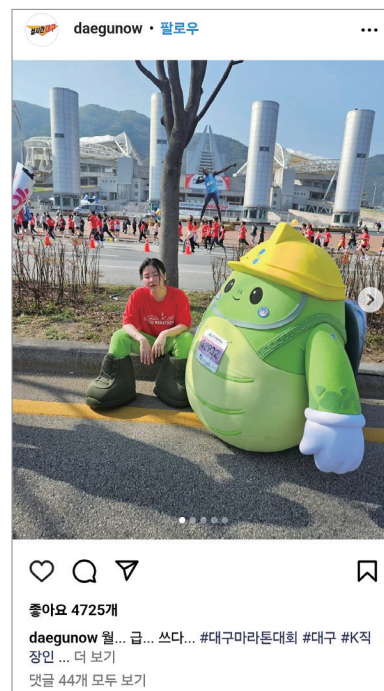
“안전문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대리는 공단에 2020년 입사했고 현재 대구광역시본부 안전문화팀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마라톤에서 그녀는 달리기에 그치지 않고, 대회 부스 곳곳을 돌며 열사병 예방과 공단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도 힘썼다.

“안전문화가 근로자들의 일상에 스며들기를 바랐습니다.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람들의 주변을 계속 기웃거리고 알짝거리면서 ‘안전’을 던지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나브로’라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다 보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기획/제작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CJ ENM

연출 심민정 | 극본 가성문

뜻밖의 균열에서 시작된
가깝고도 먼 우리 이야기

안관찰아, 전혀

양현민 | 민성준 | 진아진

11월 29일 금요일 18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삼일** 공개

⊕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 위험이름 잡아주세요!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부착으로
우리 모두 안전!



충돌



떨어짐



끼임



KOTRA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진. 유익상



KOTRA 안전운영지원실장 및 안전관리팀 일동

KOTRA와 안전보건공단 MOU 체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재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요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국내외 통합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TRA는 재난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애로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긴급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KOTRA형 위험성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해외무역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해외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KOTRA는 1962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해외 84개국에서 129개 무역관을 운영하며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투자 유치 지원, 해외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TRA는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2023년 6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해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등) 수수료를 20% 할인해주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안전인증 우수기업 2곳이 KOTRA와 공단의 협업을 통해 독일 뒤셀도르프 산업안전전시회에 참가했다. 또한 Invest KOREA Summit(IKS)에서는 안전인증 우수기업 2곳의 기업홍보관을 운영하며 해외투자자들과 심층적인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2024년 7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는 KOTRA와 공단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과 범정부 협업 차원의 '안전 원팀'을 구성해 안전경영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24 우대 서비스 및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는 중소기업 제품의 사진 촬영을 지원했으며 총 13개사 156건의 상품을 KOTRA의 B2B 플랫폼인 바이코리아에 업로드해 해외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했다.

KOTRA는 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안전 기술 및 제품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인증 우수기업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할인

지원 대상

- KOTRA를 통해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 발굴,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 받고 싶은,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되며,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 매 목적의 기업은 이용 제한

지원 내용

사업명	수수료(VAT 별도)
1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15만원/1개사
2 취급 기업 정보 조사	20만원/10개사
3 항목별 시장조사	15만원/1항목
4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15만원/1개사
5 거래선 관심도 조사	5만원/1개사
6 거래 교신 지원	15만원
7 맞춤형 지원서비스	조사 내용,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8 바이어 실태조사	45만원
9 현지 매장 방문조사	45만원
10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45만원
11 샘플 테스트 조사	45만원
12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30만원
13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지역별 상이[KOTRA 홈페이지 참조]
14 샘플 대리 전달	15만원
15 대리 면담 지원	45만원
16 전시회 대리참관	45만원
17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5만원/1개사
18 수출24 올인원 알뜰 패키지	90만원
19 수출24 올인원 베이직 패키지	105만원
20 수출24 올인원 프리미엄 패키지	150만원

할인 지원 대상군 : 안전 우수기업 포함

대상 기업	적용 서비스	할인율
1 우수 고용 창출 기업	15종 서비스 전체	20%
2 사회적경제 기업		
3 우수 방산기업		
4 소상공인		
5 국내 복귀 기업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기업		
7 대려 수출 통제 애로 기업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50%

“한랭질환 예방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물·장소입니다!”

한파 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경보

-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단계별 대응요령

주의 (한파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시간 및 휴식시간 조정 등
경고 (한파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자 우선 고려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안전보건대책을 강구한 후 진행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 수행자는 추운 시간대 재난·안전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제한

※ (민감군)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허약 체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
(중작업) 열량 소비가 많은 삽·망치·톱·곡괭이·도끼 등을 이용한 형틀·철근·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작업 등

겨울철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랭질환의 종류, 증상, 응급조치 사항 등 교육 • 작업 장소에 난방,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중작업은 가장 따뜻한 시간대로 조정 •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 근로자에게 공지 • 한랭질환 민감군 모니터링 및 주기적으로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랭질환 증상 발현 시 조치 사항 숙지 • 주기적으로 따뜻한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휴식 • 작업 시작 전 가벼운 맨손 체조 • 동료 근로자와 서로 몸 상태 체크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 하고 작업 중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접속

- 방법 1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자료 다운로드
- 방법 2 : 검색창에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로 검색하여 관련 자료 다운로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방법

일상 관리

- » 근로자들의 평소 업무의 질, 양장시간 노동, 휴일 출근 등을 파악하며 특정 개인에게 과중한 노동 부하나 책임이 집중되지 않는지 살핀다.
- » 여러 가지 기회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많이 교류하여 상담하기 쉬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소와 다른 근로자의 행동이나 상황 등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한다.

조기 발견

- » 평상시와 다른 근로자의 모습을 조기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 » 평소 근로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근로자의 행동 양식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파악해둔다.

‘평상시와 다른’ 근로자의 모습

- 지각, 조퇴, 결근이 잦다.
- 보고나 상담, 직장에서 말이 줄거나 없다(혹은 그 반대).
- 쉼대는 연락 없이 쉼대(무단결근을 한다).
- 표정에 활기가 없고 동작에도 기운이 없다 (혹은 그 반대).
- 잔업, 휴일 출근이 증가한다.
- 실수나 사고가 눈에 띈다.
-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 부자연스러운 언동이 눈에 띈다.
- 사고력·판단력이 저하된다.
- 복장이 흐트러져 있거나 의복이 불결하다.
- 업무의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조기 대응

- » 관리감독자는 평상시와 다른 근로자에게 직무상 적절한 대응을 하되,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질병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내 상담이나 산업보건과의 상담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 산업보건의 등이 없는 경우 외부 전문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를 활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책자

실무길잡이 I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개요 및 특성, 산업재해 특성, 공정·작업별 개요, 주요 유해·위험 요인 등을 담고 있는 실무책자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만든 외국인 근로자 12대 안전수칙

제공 언어
(19개)

네팔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에티오피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우크라이나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카자흐스탄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태국어, 투르크메니스탄어, 필리핀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2대 안전수칙



[한국어/영어]

12 Golden Safety Rules



▶ 추락 위험 시 그네식 벨트 체결
▶ Wear a full body harness when working at height



▶ 밀폐공간 출입 시 가스농도 측정
▶ Perform atmospheric measurement prior to entering a confined space



▶ 전기작업/장비 점검 전 경고 및 잠금 조치
▶ Place warning sign and LOTO before electrical work



▶ 화기 작업 시 화재 확인 및 불티 비산 방지 조치
▶ Check SIMOPs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before hot work



▶ 스프레이 도장작업 시 환기 철저
▶ Ensure proper ventilation when spray painting



▶ 수직부재 전도 및 절단 부재 낙하방지 조치
▶ Ensure all materials are properly secured to prevent falling or crush incidents



▶ 운반물 하부 출입 금지
▶ Do not position yourself under suspended loads



▶ 중장비/화물차 작업 반경 내 접근금지
▶ Do not approach heavy vehicles



▶ 무허가/무자격자 작업금지
▶ Prohibit work without permission and unqualified personnel involvement



▶ 안전장치 및 족장 임의 해제 금지
▶ Do not disable safety devices or scaffolding



▶ 음주 및 지정 구역 외 흡연금지
▶ Do not drink and Do not smoke anywhere other than designated areas



▶ 운전 중 과속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 Do not speed or use a mobile phone when driving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삼성중공업'에서 공유한 안전보건 자료입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SNS 메신저로
“12대 안전수칙”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 1 QR코드 스캔
- 2 이미지 클릭
- 3 필요한 언어로 제작된 이미지 선택
- 4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제공 언어
(8개)

네팔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SNS 메신저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 ① QR코드 스캔 > ② 이미지 클릭 >
- ③ 필요한 언어로 제작된 이미지 선택 >
- ④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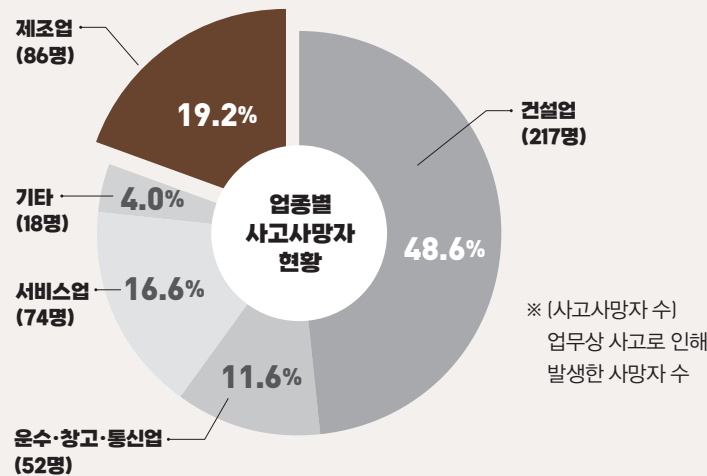
산업재해 통계

제조업

매년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1월에 제조업에서 사고사망자 86명, 사고재해자 9,811명 발생"

최근 5년간(2020~2024년)
1월에 발생한
사고사망자 현황



연도별 사고사망자 현황

연도	계	86명
2024년 1월	16명	
2023년 1월	14명	
2022년 1월	14명	
2021년 1월	16명	
2020년 1월	26명	

재해 유형

발생 형태	사고사망자	비율	발생 형태	사고재해자	비율
합계	86명	100%	합계	9,811명	100%
떨어짐	28명	32.6%	끼임	2,998명	30.6%
끼임	22명	25.6%	넘어짐	1,651명	16.8%
물체에 맞음	9명	10.5%	절단·베임·찢림	1,014명	10.3%
폭발·파열	9명	10.5%	부딪힘	985명	10.0%
부딪힘	7명	8.1%	떨어짐	934명	9.5%
깔림·뒤집힘	3명	3.5%	물체에 맞음	881명	9.0%
넘어짐	2명	2.3%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24명	4.3%
화재	2명	2.3%	이상온도 접촉	248명	2.5%
무너짐	2명	2.3%	깔림·뒤집힘	234명	2.4%
기타	2명	2.3%	기타	442명	4.5%

1월에 발생한 사고사망자 현황

1월에 발생한 사고재해자 현황

사고재해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재해 사례

리프트 승강로 아래로 떨어짐

작업장 3층 옥상에서 포장 작업이 완료된
인쇄물을 1층으로 옮기기 위해
산업용 리프트에 탑승하다 내부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짐



발생 원인

- 산업용 리프트는 화물용으로 근로자 탑승이 금지되어 있으나, 운반구 내부에 운전이 가능한 펜던트형 조작 스위치 설치·사용
- 리프트 탑승장 및 운반구 내부의 조도 미흡

예방대책

- 작업자 탑승 금지
 - 리프트는 본래의 목적대로 화물 운반의 목적으로만 사용
- 연동장치 설치
 - 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조작 스위치로 출입구의 문이 닫힌 경우에만 운반구가 작동되도록 연동장치 설치
- 적정 조도 유지
 - 운반구 탑승장 및 운반구에 조명* 설치
 - * 적정 조도 : 75lux 이상(통로 기준)

재해 사례

인쇄 중 이물질 제거하려 롤러에 끼임

인쇄 작업 중 배지부 회전 부위에 끼인
인쇄물을 제거하기 위해 덮개를 열고
작업 중 머리 등 신체 부위가 끼임



발생 원인

- 운전 중인 상태에서 인쇄기에 끼인 이물질 제거
- 방호장치 임의 해체

예방대책

- Lock Out Tag Out
 - 인쇄기에 끼인 종이를 제거하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안전조치 실시
- 방호장치 해체 금지
 -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는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되며,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를 원상태로 한 후 작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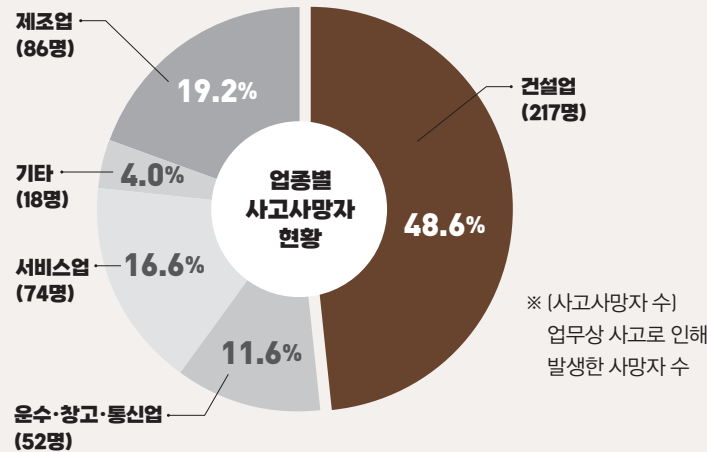
산업재해 통계

건설업

매년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1월에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 217명, 사고재해자 10,346명 발생"

최근 5년간(2020~2024년)
1월에 발생한
사고사망자 현황



연도별 사고사망자 현황

연도	계	217명
2024년 1월	30명	
2023년 1월	28명	
2022년 1월	55명	
2021년 1월	46명	
2020년 1월	58명	

재해 유형

발생 형태	사고사망자	비율	발생 형태	사고재해자	비율
합계	217명	100%	합계	10,346명	100%
떨어짐	131명	60.4%	떨어짐	3,070명	29.7%
부딪힘	22명	10.1%	넘어짐	2,099명	20.3%
물체에 맞음	15명	6.9%	물체에 맞음	1,218명	11.8%
깔림·뒤집힘	12명	5.5%	부딪힘	1,022명	9.9%
무너짐	11명	5.1%	절단·베임·찢림	929명	9.0%
끼임	6명	2.8%	끼임	893명	8.6%
화학물질 누출·접촉	5명	2.3%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355명	3.4%
폭발·파열	4명	1.8%	깔림·뒤집힘	351명	3.4%
넘어짐	3명	1.4%	무너짐	120명	1.2%
기타	8명	3.7%	기타	289명	2.8%

1월에 발생한 사고사망자 현황

1월에 발생한 사고재해자 현황

사고재해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재해 사례

갯폼 설치작업 중 갯폼과 함께 떨어짐

외벽에 설치된 갯폼에 2단 케이지 연장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갯폼의 작업발판에 오르는 순간 갯폼이 벽체에서 이탈되어 근로자가 떨어짐



발생 원인

- 갯폼 지지용 앵커볼트를 벽체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 누락

예방대책

- 갯폼 지지용 앵커볼트 누락 없이 설치
 - 갯폼 지지용 매립형 앵커볼트는 반드시 벽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 내부에 누락 없이 매립·설치하여 콘크리트 양생 후 갯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함

재해 사례

시스템 비계에서 인접 시스템 비계로 건너다 떨어짐

근로자가 A동 외부 시스템 비계를 통해 약 1.2m 건너편에 설치된 B동 외부 시스템 비계로 건너다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짐



발생 원인

- 외부 시스템 비계 간 이동통로 미확보 등 떨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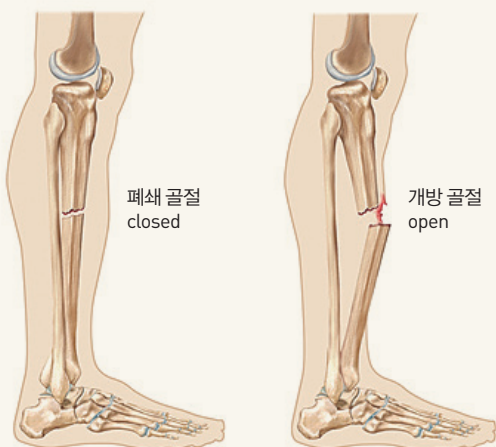
예방대책

- 이동통로 설치
 - 여러 동으로 구성된 건축물 공사 시 작업 여건상 각 동을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외부 비계 사이에 수평 연결 통로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 여러 동이 있는 건축물 공사 시 동 간 거리가 짧아 근로자가 시스템 비계 사이를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 비계 외부에 수직형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임의로 시스템 비계 사이를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

"겨울철 '골절 사고', 그 예방과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자"

글. 윤상규_경북 울진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골절(骨折, fracture)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발생한 것을 통칭합니다. 이러한 골절은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으로 평소 각종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즐기는 젊은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철이 되면 언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노인이 급증하곤 합니다. 골절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상처 주변을 지나는 주요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어 저림 또는 마비 증상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골절의 종류와 증상 그리고 올바른 응급처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절은 손상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여기에서는 골절의 형태에 따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편의 수와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뼈에 금이 간 골절 선이 확인되는 '선상골절(Linear fracture)', 골절선이 1개로 두 개의 골절편이 발생한 '단순골절(Simple fracture)', 강한 충격을 당해 골편 수가 3편 이상이고 상처 부위가 넓은 '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 하나의 뼈에 두 개 이상의 단순골절이 발생한 '분절성 골절(Segmental fracture)'로 분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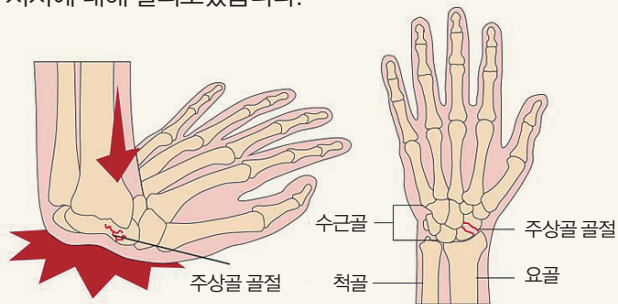
두 번째로는 뼈가 부러지면서 피부를 뚫고 나와 골절된 뼈가 외부에 노출되고 주변 조직과 장기를 손상하여 2차 감염 위험이 큰 '개방 골절(Open fracture)'과 피부 안에서만 골절이 발생한 '폐쇄골절(Closed fracture)'로 구분합니다. 이외에도 골절은 그 정도, 손상의 기전, 골편의 전위 등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치와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골절이 발생했을 때 그 정도와 양상을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골절로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절 시 응급처치는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여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골절 사고 발생 시 골절 부위를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 여러 시도를 하는데 이는 골절 주변 부위의 조직, 근육, 신경 및 혈관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골절 응급처치는 우선 환부를 고정하고, 부러진 뼈를 바로 맞추는 '정복술(closed reduction)'을 실시하여 최대한

감염이나 부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의가 정복술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119구조대에 신고한 후 급한 대로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먼저, 추가 손상을 막고 통증을 완화해 주기 위해 손상 부위를 부목과 끈 또는 테이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때 나무판자, 신문지, 종이 상자 등을 부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목은 골절된 부위의 위 아래 관절까지 댈 수 있게 폭이 넓고(골절 부위보다 넓어야 함) 긴 것이 좋습니다. 부목은 부드러운 천 등으로 감싸서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쇼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특별히 외진 곳이 아니라면 10분 전후로 구급차가 당도하고, 병원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환자에게 전달하여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골절 부위별 특징 및 응급처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악골 골절’**입니다. 뭔가 강한 힘에 부딪혀 턱이 골절된 경우를 말하는데, 최근 골프를 치다가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거나 골프채에 맞아 내원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머리 자체를 부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손바닥을 턱 밑에 대고 아래턱을 조심스럽게 올려서 아랫니를 윗니에 맞춘 다음, 그 상태로 붓대 또는 삼각건으로 아래턱 밑을 받쳐서 머리에 묶어줍니다. 만일 환자가 토한다면 즉시 붓대나 삼각건을 풀어서 혈행을 도와야 합니다. 다음은 **‘쇄골 골절’**로, 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빙판길에 넘어져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일반인이 페달에 신발을 고정하는 선수용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어깨와 골반이 함께 골절된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선수용 자전거를 탈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쇄골을 다치면 어깨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다친 쪽의 팔과 어깨를 늘어뜨리거나 팔꿈치를 지지해 주고 머리는 다친 쪽으로 기울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팔 골절’**입니다. 팔 골절은 상완골, 팔꿈치, 전완골의 골절이 많습니다. 팔 골절은 특히 빙판길에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짚으면서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팔 골절이 의심된다면 팔과 어깨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하고 팔걸이나 손으로 손상 부분을 받친 채 즉시 내원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바닥이 얼어 미끄러울 때는 전완골의 골절 중 콜리스(Colles) 골절 환자가 많습니다. 콜리스 골절은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땅에 짚는 경우 발생하기 쉽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외출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 골절만큼 흔히 발생하는 **‘발목 골절’**입니다. 주로 발을 헛디뎈 발생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는 사이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골절입니다. 사고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부종이 발생한다면 골절이나 인대가 찢어졌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체중이 손상 부위에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통증이 너무 심해 움직이지 못한다면 발 전체를 폭신한 담요 위에 올려 놓고 붓대를 감아 고정해야 합니다. 주변에 발 전체를 감쌀 만한 물건이 없다면 발뒤꿈치부터 무릎까지 길이의 부목을 양쪽에 하나씩 대고 묶어준 뒤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사고를 인지하고 사고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무리하게 응급처치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119에 사고 내용을 신고한 후, 환자를 안정시키고 체온을 유지해 주면서 환부를 최대한 고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절이 발생한 후 6~12시간이 지나면 부종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의가 정복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겨울도 여느 해처럼 추운 날씨가 예보됩니다.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걸 권합니다, 하지만 스키, 스케이트, 얼음낚시 그리고 겨울 산행이나 캠핑처럼 특별한 겨울의 추억을 쌓고 싶다면 미끄러짐, 떨어짐, 뺨 등에 대비한 부목과 압박용 붓대 등 구급용품을 반드시 챙겨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골절 정복술과 각종 골절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소통이 만드는 리더의 품격

나는 리더가 될 상인가?

글. 우연희 _ 스카워크 코리아 대표컨설턴트

“리더라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감정을 다루는 법도
잘 알아야 한다.”

“앞으로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 커뮤니케이션 컨설팅과 리더십 코칭을 하는 필자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사람들의 말은 발음, 발성, 속도, 어조 등 그만의 속성을 갖고 있다. 코칭 중 개선해야 하는 말의 습관이나 단점도 많이 발견한다. 말을 자꾸 끊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거나,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게 모호하게 말하는 것 등이다. 또 독특하고 반복적인 말의 습관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1분을 말하는데 “사실” “애초에” “솔직히” 등의 단어를 십 수 번 쓰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에 대해 알려주고 고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지만,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소해 보이는 이 소통의 방식이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이다.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이미 리더인 사람도,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겠다. 리더란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리더의 역량이 충족되지 않는다. 조직이 요구하는 다른 역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리더가 된 후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없으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며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더라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리더십 스타일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현재 국내 산업체와 정부 조직 모두에서 MZ세대의 비율이 최소 30%, 최대 60%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상사라도 계층적 위계를 따지기보다는 편하게 ‘나를 공감해 주고 나의 의견도 받아줘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그들에게 더 이상 ‘나를 따르라’는 권위형 리더십(Autocratic Leader)이나 카리스마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은 존중받지 못한다.

이제 리더라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감정을 다루는 법도 잘 알아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수사학의 3대 설득 요소에는 에토스(Ethos -신뢰, 권위, 윤리성), 로고스(Logos-논리), 파토스(Pathos-감정)가 있다. 매우 어렵게 들린다. 쉽게 풀어보자.

- **에토스(Ethos)** : ‘말하는 사람의 고유 성품’이란 뜻이다. 나에게 윤리성에 기반한 신뢰, 전문성, 실력 등이 있어야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이 내 말을 귀담아들을 것이다. 따를 만한 가치나 존재감이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들은 나를 주목하지도, 따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 **로고스(Logos)** : ‘말, 이성, 논리’라는 뜻이다. 논리적인 설명, 팩트(사실), 수치, 통계, 사례를 통한 체계적 설명과 결론 도출로 나의 논리를 납득시켜, 동의에 이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성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미 조직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 **파토스(Pathos)** : ‘감정’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조직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치부하는 이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남다른 차별점을 만들어 낸다. 나의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행동을 자극, 유도할 수 있다.

아직도 어려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았다면 이렇게 조언해 줄 것이다.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자. 하나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 또 하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의외로, 감성적인 말이 이성과 논리보다 더 설득력 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어도 말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말하는 당신이 신뢰를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나를 믿어달라 해도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당신을 믿어줄 리 만무하다.”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보편적 특징 5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리더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자. 역시 리더에게는 남다름이 있다는 뜻이다. 아직 내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습관이 없다면 이제부터 염두에 두고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자.

1. 목적을 분명히 한다.

목적이 분명한 의사소통(Purposeful Communication)이어야 말에 힘이 생기고 오해나 혼란이 없다. 처음부터 나의 목적이 선명히 드러나도록 하며, 많은 대화가 있었다면 '지시'나 '요청'으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대화 말미에 명확히 드러낸다.

2. 잘 들을 줄 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숨겨진 동기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반영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말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량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의사 전달이 아니라 의사소통인 근본적인 이유다.



“스스로 ‘그건 어렵다, 안 된다’고 말하는 비판적인 시각에 자부심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3. 부정적인 메시지도 긍정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문으로 말한다. 스스로 ‘그건 어렵다, 안 된다’고 말하는 비판적인 시각에 자부심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팀원이라면 괜찮겠지만, 안 된다고 말하는 리더를 보았는가? 누가 그를 따르겠는가? 무조건 ‘Yes’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할 경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같은 말 습관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자.

4. 공감과 배려의 말을 잊지 않는다.

공감 능력(Empathy)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 어떻게 이를 키워야 하는지는 감이 오지 않는다. 게다가, 조직 내에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거나 결림돌의 연속에 빠진 직원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은 진정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괜찮습니까?” “당신의 곤란함을 이해합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와 같이 마음을 살피는 말들이 그 예다. 의외로 이런 말 한마디가 신뢰를 만들며,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 결국 남다른 마음으로 대하니 리더인 것이다.



5. 말뿐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명 의사 소통(Vibrational Communication)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역량은 ‘진정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스처, 톤, 자세, 눈맞춤, 표정 등이 나의 말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에너지와 감정 또한 말과 일치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의 ‘감정’은 짜증이 난다면 이를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얼마든지 뚱뚱다며 인상을 쓰거나, 비즈니스 상황이 어려우니 함께 헤쳐 나가자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눈빛이 한없이 공허하다면 직원들은 이를 곧바로 알아차린다. 이러면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확신과 팀워크를 말하려면 말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온 마음을 담고, 이를 비언어적으로도 잘 전달해야 상대방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다.

“확신과 팀워크를 말하려면 말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온 마음을 담고,
이를 비언어적으로도 잘 전달해야 상대방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 글의 결론 :

리더의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에서 가장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낸다. 다음 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

배달 종사자 안전에 색(色)을 입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1일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 도로 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했다.

*대상을 시각적으로 매우 쉽게 식별하고 인식하게 하는 성질

배달 종사자에게 전한 고시인성 보호장비는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으로 형광색이나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 등을 사용해 가시성이 높다.

* 빛이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반사되는 특성을 가진 소재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 요인을 알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해 배포한다.

*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 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

올해 배포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 금지 등 20종이다.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한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www.kosha.or.kr)'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예시)



국제

새롭게 대두되는 유해·위험 요인 대응

심리적 안전보건 전략 2024~2026

추진 배경

- 호주에서 기업들이 직장 내 정신질환으로 인한 참여도 및 생산성 손실로 연간 최대 390억호주달러(약 34조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됨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안전보건청(SafeWork NSW)은 사업주가 심리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근로자를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리적 안전보건 전략 2024~2026' 발표

주요 내용

- 인식 제고
- 프로그램, 도구 및 리소스 제공을 통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 만들기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 추진
-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행동을 유도하는 앰배서더 프로그램 지속 운영

호주

- 심리적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업무 설계원칙(good work design principles) 관련 사례 연구·개발 및 증진

○ 역량 구축

- 2만1000명에게 직장 내 정신건강 교육을 무료로 제공, 960개 기업에 코칭 제공
- 기업과 근로자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도구, 리소스 및 지원 지속 제공
- 심리적 상해 고위험군인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근로자를 위한 번역자료 제공
- 심리 사회적 위험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 포럼 개최

○ 감독 강화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상담 및 지원
- 심리 사회적 위험 관리에 관한 법적 변경 사항을 적용토록 감독관에게 도구와 지침

나에게 맞는 이달의 힐링 장소

2025년 1월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문화관광축제가 속속 개최된다.
각 지역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놓치지 말자!

● 서울 빛초롱 축제

서울 대표 야간 빛축제로, 빛 조형물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겨울 'SOUL LANTERN: 서울, 빛을 놀이하다'를 주제로 청계광장 및 청계천 일대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200개가 넘는 다양한 빛 조형물을 설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요금은 무료지만, 사전 예약제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이다.

기간 : 2024년 12월 13일 ~ 2025년 1월 12일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8 청계천 일대(청계광장-삼일교)



● 홍천강 공공축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얼음낚시와 맨손으로 잡는 맨손송어잡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가족 실내 낚시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실내 가족체험관과 눈썰매장,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초가집, 겨울철 민속놀이터, 향토음식점 등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된다. 올해는 몸길이 45cm 이상 슈퍼인 삼송어도 만날 수 있다.

기간 : 2025년 1월 18일 ~ 2월 1일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501 홍천강변 일원



● 겨울공주 군밤축제

중부권 대표 겨울 축제로,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개최된다. 메인 프로그램은 대형 화로에 공주 알밤을 구워 먹는 '대형화로체험', 공주 지역 농축산물을 그릴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공주 군밤 그릴존 체험', '알밤과 놀아밤!'이다. 또 알밤 관련 음식, 물품 만들기 등도 할 수 있다. 전국 군밤축제 사진 공모전, 어린이 글짓기 대회도 열린다.

기간 : 2025년 1월 16 ~ 20일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68(신관동) 공주 금강신관공원



● 겨울엔 양평

'양평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슬로건으로 2개월간 열린다. 양평의 따뜻함을 소재로 지역 자원을 연계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특별한 겨울 여행을 선사한다. 양평의 대표 음식인 해장국과 순댓국 등의 식당, 도서관 및 서점, 반려동물 동반숙소 등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다양한 장소를 탐방할 수 있다.

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1 양평군 전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복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응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대기업의 협력사 복지사업 지출비용
50%범위 내
(매년 최대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
100%범위 내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 규모별)

상담문의

• 기금 설립 운용

 고용노동부 (1350, 044-202-7787)

• 지원금

 근로복지공단 (052-704-7332, 7304)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안전한 일터
응원 캠페인

안전한 일터를 찾습니다

관리자와 근로자가
서로 응원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사업장(현장)을 찾습니다



Q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참여



독자 여러분,
〈월간 안전보건〉에
더 담겼으면
좋을 만한 의견을 주세요

귀하의 일터를 소개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귀하의 일터를 소개해 주세요



Q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youtube.com/@koshamovie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blog.naver.com/koshablog

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facebook.com/KOSHAnet

안전보건공단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kosha

안전보건공단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osha.angel

안전보건공단 X(구.트위터)
X.com/KOSHAnet